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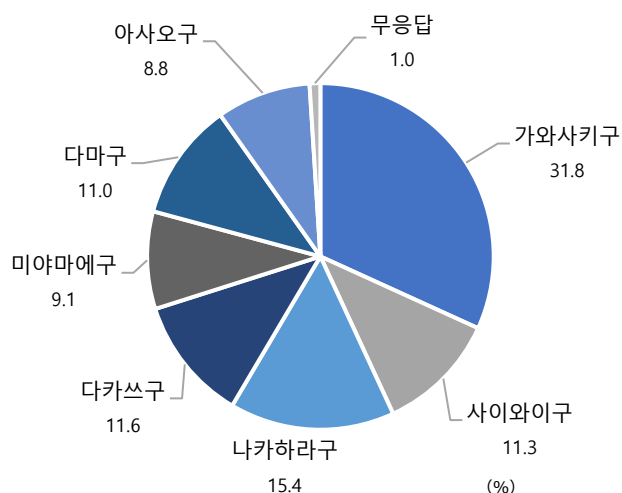
<개요판>

가와사키시에서는 국적, 민족, 문화의 차이를 풍요로움으로 살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자립적인 개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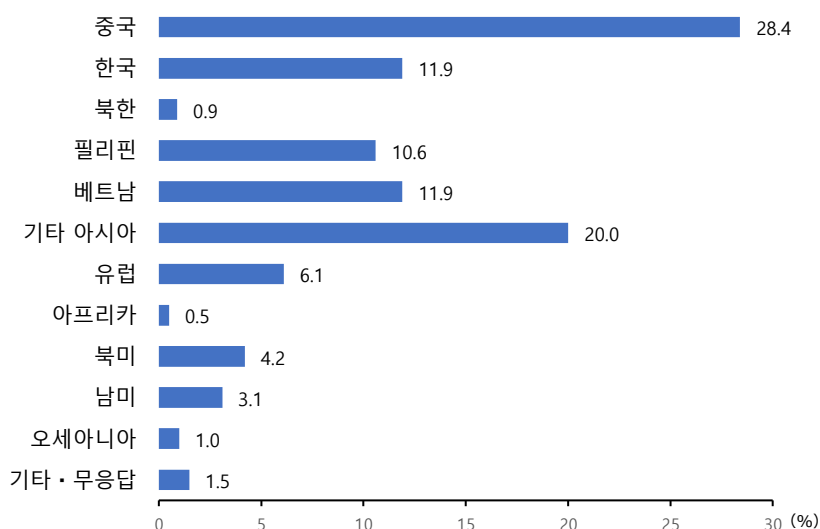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의 의식과 실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 시책에 활용하기 위해 2019 년 조사 이후 5 년 만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의료·보험, 육아·교육, 지역활동·시정 참여, 직장, 행정의 대응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간체자), 중국어(번체자),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네팔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 시내 거주 18 세 이상 외국인 시민(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5,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중 1,031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회수율 20.6%). 응답자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6.0%, 여성 52.6%, 기타 0.5%, 무응답 1.0%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 구분, 국적·지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구분(n=1,031)】



【국적·지역별(n=1,031)】



이번 '보고서 <개요판>'에서는 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시책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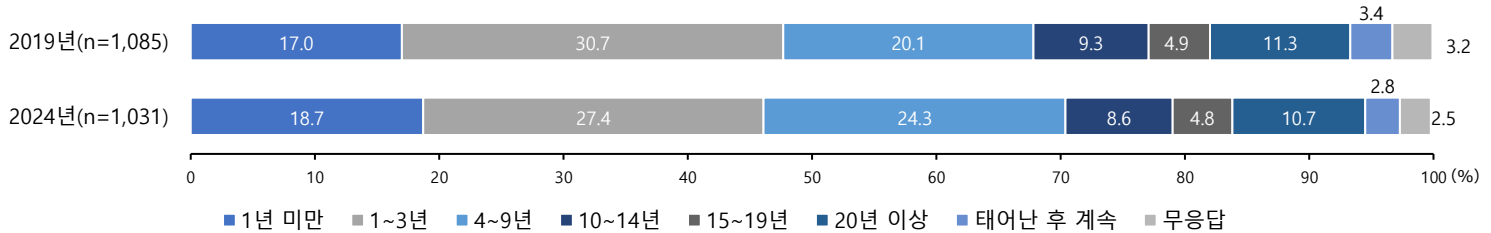
'보고서 <개요판>'은 영어, 중국어(간체자), 중국어(번체자),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네팔어로도 제공됩니다. 본 보고서와 요약본은 다음 UR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4-0-0-0-0-0-0-0.html>

거주기간은 절반 가까이가 3년 이내

시내 거주 기간의 설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1%가 3년 이내였습니다. 또한 70.4%가 9년 이내였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1~3년'은 3.3 포인트 감소했지만, '1년 미만'은 1.7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 전입하는 외국인 시민권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내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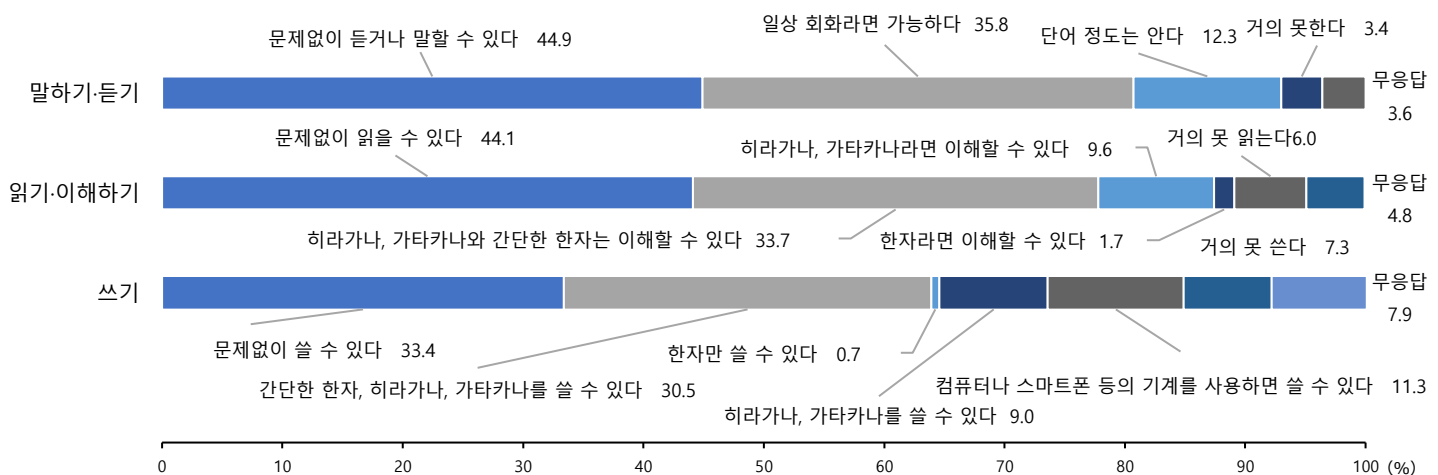


일본어 능력은 일상생활 수준의 70~80%, 번역의 필요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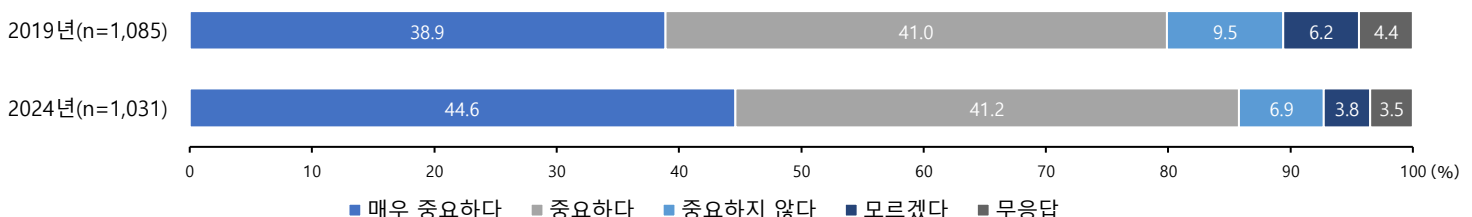
일본어 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제없다'와 '일상회화',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간단한 한자'의 합계가 <말하기·듣기>와 <읽기·이해하기>에서 80%를 넘었고, <쓰기>에서도 70%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없다'에서는 <말하기·듣기>에서 7.1 포인트, <읽기·이해하기>에서 9.1 포인트, <쓰기>에서 12.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다국어 정보 제공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의 합은 '알기 쉬운 일본어 표기'가 82.5%, '후리가나가 병기된 일본어로 표기'가 68.1%, '외국어 번역'이 85.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특히 '외국어 번역'이 5.9 포인트 증가해 다국어 번역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n=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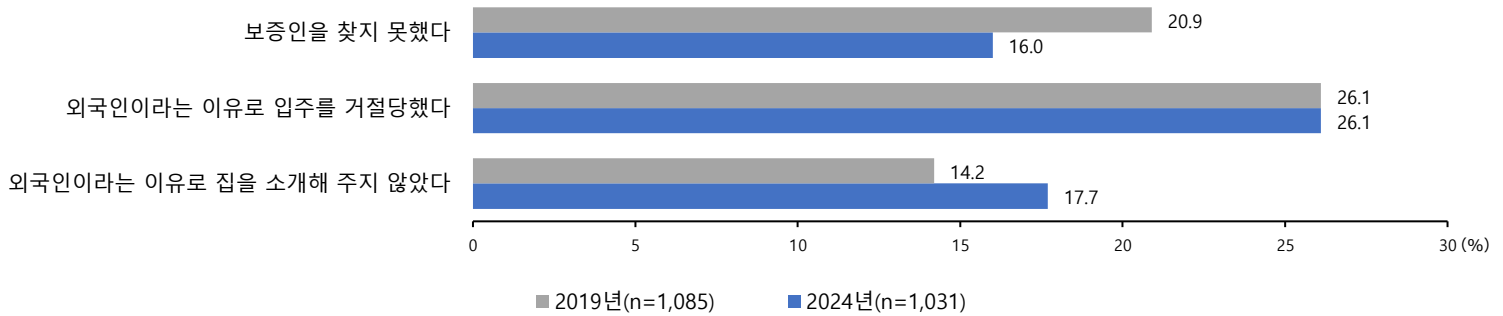
【외국어 번역】



4명 중 1명,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

가와사키시에서 집을 구할 때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50.0%가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곤란한 경험으로는 과거 많은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보증인을 찾지 못했다'가 지난 조사보다 4.9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아닌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는 26.1%로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는 지난 조사보다 3.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는 국적,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인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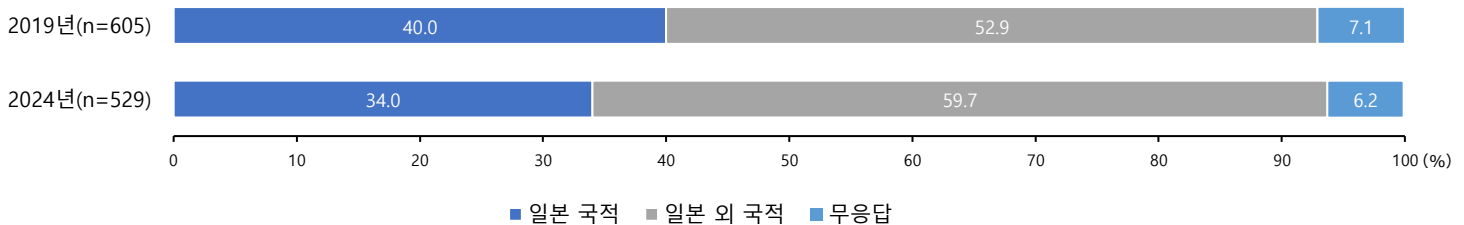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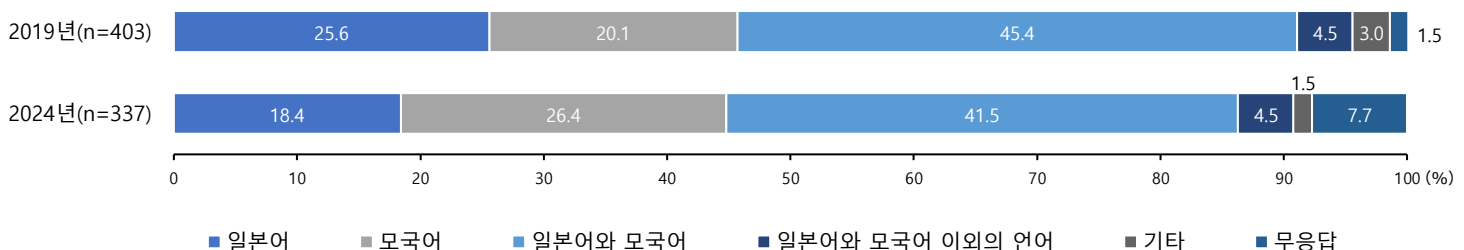
자녀가 가정에서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

전체 응답자의 32.7%, 약 30%가 25 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의 국적을 묻은 결과, '일본 국적'은 34.0%로 지난 조사보다 6.0 포인트 하락했고, '일본 외 국적'은 6.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일본어'가 지난 조사보다 7.2 포인트, '일본어와 모국어'가 3.9 포인트 감소해 자녀가 가정에서 일본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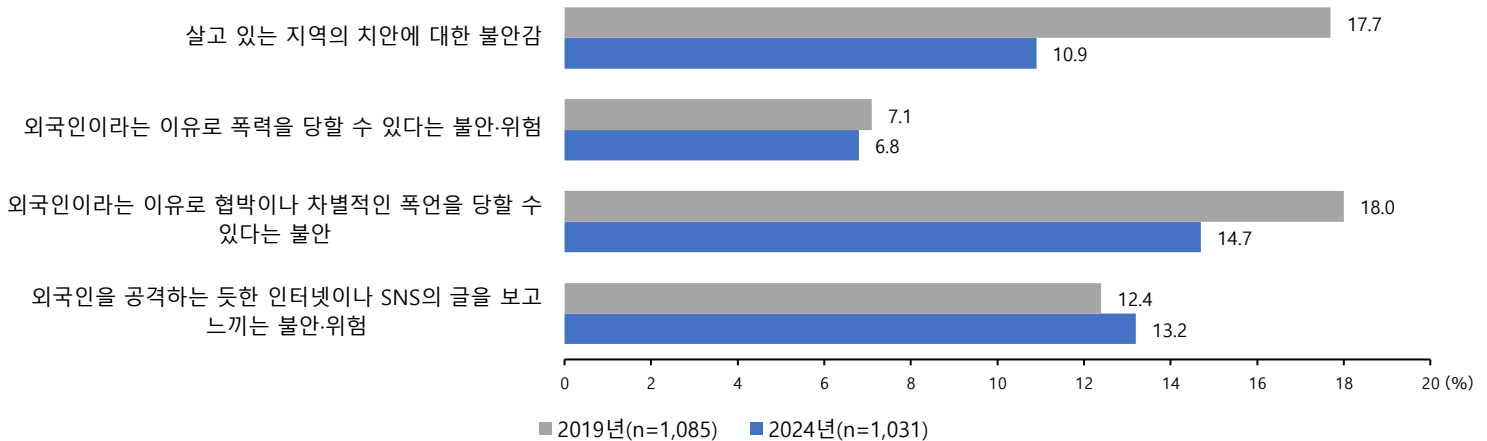
【어린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협박, 차별적 폭언에 대한 불안과 위험은 감소

최근 1 년간 느낀 불안감이나 위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살고 있는 지역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 조사보다 6.8 포인트 감소해 치안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위험'은 0.3 포인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이나 차별적인 폭언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도 3.3 포인트 감소해 2019 년 제정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도시 만들기 조례'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을 공격하는 듯한 인터넷이나 SNS 의 글을 보고 느끼는 불안·위험'은 0.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1 년간 느낀 불안과 위험】



재난 대비에 대해 약 30%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묻은 결과, '음료수와 식료품을 준비해 놓았다'는 지난 조사보다 7.8 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4.8 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도 16.0%에 머물렀습니다.

【재난 대비(MA, n=1,031)】

